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박차

전주시,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추진... 3개 기업 선정 지원

전주시가 올 한해 육성해온 첨단 바이오산업이 경제 전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정읍시,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첨단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바이오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첨단바이오 기업 R&D 지원사업과 연계한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바이오산업을 키워나갈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구체적으로 시는 올해 총 4억 원(도비)의 사업비를 투입해 △라파라드(주)의 '방사선 부작용 예방을 위한 자기형광 기반 방사선 염증 사전탐지 진단기 개발' △(주)오에스와이메드의 '허혈성뇌졸중 치료를 위한 혈전흡입 능력'이 우수한 카테터 개발' △(주)이노클의 '단일세포 멀티오믹스 기반 맞춤형 정밀 진단치료 플랫폼 개발' 등 3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다.

참여기업들은 각각 목표한 성과 달성을 위해 R&D 역량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암센터 창업기업으로 서울에서 전주로 본사를 이전한 라파라드(주)는 특정 종양 부위만 방사선을 조사하는 근접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자기형광 기반 방사선 의도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용인에 본사를 둔 중재 의도기기 분야 선도기업인 (주)오에스와이메드는 첨단바이오 R&D 지원사업 과제 선정을 계기로, 전국 유일 중재 의도기기 전주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 전주에 생산시설을 확충했다. 이 기업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졸중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 카테타에 신기술을 접목해 기존 제품 대비 치료 효과가 월등한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끝으로 세포 내 mRNA의 발현 분석을 시작으로 단백질과 DNA 염기서열,

나이가 조식 내 세포 위치정보까지 동시에 분석하는 다중 오믹스(Multi-Omics) 분석 기술을 보유한 (주)이노클은 개인의 유전체 정보, 환경,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맞춤형 정밀의학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주)이노클은 내년에 전주시로 기업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첨단바이오 R&D 지원사업은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면서 "바이오 분야 선도기업 유치 및 지역 감소 기업 육성을 통해 바이오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6개 바이오 기업을 유치한 바 있으며, 전주시정연구원과 함께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구상 공동연구를 통해 내년에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김옥기 기자

“아동학대 인식 개선 최선”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적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했다.

참여자들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존중 양육'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형식으로 현재까지

캠페인을 이어왔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임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을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가도록 전주시보건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판암어린이집, 아나바다 수익금 기부

전주 판암어린이집(원장 이승임)은 효자1동 주민센터를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6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판암어린이집에서 주최한 아나바다 장터에서 원아들이 직접 집에서 가져온 장난감, 동화책, 옷 등을 판매한 수익금과 판암어린이집 교직원,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모금액이 더해져서 마련되었다.



판암어린이집은 원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경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기부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경험시켜 주고자 이번 아나바다 장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주 판암어린이집 원장(이승임)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효자1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